

姜시장 “획일적 고층아파트 문제 있다”

전남 농업법인 세곳 중 한곳 적자 경영

도시재생, 주거·일터·녹지·공공시설 어우러져야

‘환경·도시·교통분야 시민대토론회’

양과동 의료폐기물소각장 특별감사

광주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소각장과 관련, 허가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19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엑스포 주재관에서 열린 ‘민선 2년 환경·도시·교통분야 시민대토론회’에서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소각장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민들에게 특별감사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남구청이 민간 의료폐기물소각장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형조 의료폐기물소각장반대투쟁위원장과 주민들은 “폐기물업체가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확인해보니 인근 주민이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며 “남구청이 터무니 없는 행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 폐기물업체는 그동안 투자한 비용을 보상해주면 (공사를) 안 하겠다고 했다”고 몰래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다”며 “이제는 허가관청인 남구청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이에 대해 “특별감사를 통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만약 명백한 하자

가 있다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 문제가 없다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시장은 이와 함께 “획일적인 고층아파트 건설은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도시재생은 주거공간과 일터, 녹지와 공공시설 등 4가지 요소가 어우러지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호남대 신태영 교수는

“도시를 재생한다며 단순히 노후 주택을 고층아파트로 바꾸는 것은 안 된다”며 “광주도시공사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시재생기금도 확보해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보급, 명실상부한 창조적인 도시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시장은 “연간 서민 주거공간으로 600세대 정도가 필요하다”며 “도심 내 일부 재건축·재개발 대상구역에 대해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인 서구 화정주공아파트와 같은 미분양 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그러나 “문제는 역시 돈이며, 도시재생기



강운태 시장과 함께 하는 행복만 창조도시 광주시민 대토론회가 19일 5·18시민공원 내 광엑스포관에서 환경·도시·교통·건설분야를 주제로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김총리 “日 독도 도발 대단히 유감”

대북 밀가루 지원 9개월만에 승인 가다

국무회의서 대응방안 논의

정부는 1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 지시와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 등 일본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민간기업인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조치는 국제적 외교 관례 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도 반할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로서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단호하면서도 조응한 기초를 취했던 것을 감안하면 다소 이례적인 발언으로, 최근 일본의 ‘도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데다 국내 여론이 악화된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총리 이하 모든 국무위원이 독도가 명백한 우리 땅이라는 인식을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공유했다”며 “적절하게 실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령에 대해서 사실상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절제된 대응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통일부

정부가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사실상 금지해온 민간단체들의 대북 밀가루 지원을 조만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밀가루는 군 식량 등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개연성 때문에 정부가 지원에 부담을 느꼈던 품목이어서 밀가루 지원이 재개되면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19일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은 승인을 해왔지만 (승인 품목에) 밀가루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밀가루도 분배 투명성을 봐가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

이라고 밝혔다. 지원되는 물품을 취약계층이 받는지를 우리 민간단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북한이 어느 정도의 모니터링을 허용한다면 조만간 밀가루 지원을 승인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정부는 작년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에 이어 연평도 포격 도발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금지해오다가 올해 3월부터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했다. 그러나 밀가루의 경우 통일운동단체인 흥사단이 작년 10월 27일 북한 수해지역 이재민을 돕기 위해 100t을 지원한 이후 9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한 건도 반출 승인을 얻지 못했다. /연합뉴스

“규모화·조직화 절실” 전남발전연구원 지적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등 전남 농업 관련 법인 세 곳 중 한 곳이 전문성과 운영능력 부족 등으로 적자 경영을 하거나 개점 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발전연구원 조창완 책임연구위원이 19일 내놓은 ‘전남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경영체 조직화 방안’이라는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 농업법인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452개소에 이르며 이 가운데 33.6%인 823개소(영농조합법인 747개·농업회사법인 76개)가 이윤법인 법인

이거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위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마케팅 능력 및 전문성, 운영 능력 부족 등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외 FTA 등으로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할 전문인력도 부족한데다, 소규모로 운영되면서 고품질 상품의 지속적인 공급 기반이 취약한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전남도가 오는 2014년까지 쌀 농업회사법인 70개소를 비롯, 원예 및 특작 77개소, 축산 10개소, 산림 7개소 등 모두 164개소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업법

인의 부정적 요인을 제거하는 게 시급한 실정이다.

조 위원은 “2452개의 농업법인 중 영농조합 형태가 92.9%(2280개)에 이르는데, 이들 상당수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면서 전남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농업 생산조직의 규모화·조직화 및 품목별 경영체 육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이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한 거리융자제도 도입 ▲향토산업·광역식품산업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한 신규 농업경영체 지원 ▲경영체간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차타고 F1보러 오세요”

조직위·코레일 테마열차 관람객 모집 협약

F1(포뮬러원) 대회조직위원회는 19일 오전 도청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허준영 사장과 F1 대회 관람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도와 코레일은 ▲F1대회 국내외 관람객 유치를 위한 철도관광 상품 개발 ▲F1 상품 판매촉진 협력 ▲교통편의 및 주변 관광정보 제공 등을 통해 F1대회 국내외의 관람객 유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특히 테마열차 2종

(통통통 뮤직 카페열차, 아로마 트레인)을 ‘F1 테마 열차’로 단장하고 KTX를 통한 F1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고급침대열차로 일본시장에서도 인기가 높은 ‘해랑’호 2편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열차를 F1 관람객 수송용으로 동원하게 된다.

해랑 1호는 F1메니아용으로, 해랑2호는 F1과 남도여행을 포함하는 열차로 운영될 예정이다.

코레일은 또 수도권 관람객을 타깃으로 한 ‘F1테마열차’를 활용,

삼야에 서울역을 출발해 이튿날 새벽 곡성에 도착, 보성 녹차밭과 장흥편백수 등 남도의 맛과 멋을 직접 체험하고 F1대회도 관람할 수 있는 무박 2일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F1 조직위는 열차를 이용하는 F1고객을 위해 입장권 특별할인, 모집마케팅, 해랑열차 단장 등을 통해 코레일의 마케팅을 작·간접적으로 지원한다.

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F1대회의 성공 개최 및 전남 서남권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밀·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97억 지원

전남도, 영농자금 대출농가 이자 감면도

전남도는 19일 불철 이상 저온으로 입은 밀과 과수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돼 총 96억7727만원의 복구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피해 농가에 대한 생계비로 40억 4665만원이 책정됐고 농약대 39억 6984만원, 피해자물을 대신해 파종하

는 비용인 대과대금은 16억6041만원 등이 직접 지원된다.

농축산경영자금을 대출받은 4454농가에 대한 대출원금 303억원의 상환 기간을 1~2년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등 간접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전남도는 또 피해농가의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해대책경영비를 별도로 확보해 연리 3%에 1년 상환(1년 연장가능) 조건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남에서는 지난 3~4월 기습적인 이상 저온으로 국산 밀의 경우 4068농가에서 5490ha가 피해를 입었고 5667 과수 농가에서 4569ha의 피해가 일어났다.

전남도 관계자는 “피해농가에 대한 농업 재해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 영농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조이 여행사 JOYTRAVEL

대표전화: (062) 234-322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51-번지 FAX: (062)234-3141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름방학특가 일본의 전통료칸 카이세키요리를 맛볼 수 있는 온천여행 4일

▶출발일: 7/26,29,8/6,11 ₩419,000

국내여행

오렌지호스스타크루즈로떠나는 제주도 여행 3일!!!

선박

- 목포-제주도 ₩159,000원~
- 장흥-제주도 ₩179,000원~

불포함:기사&가이드팀(₩10,000원) 수송비(광주-목포&장흥)

항공

- 광주-제주도 ₩289,000원~

불포함:기사&가이드팀(₩10,000원)

*주요: 아트랜드, 퍼시픽랜드

일본

여름방학 광양해리로 떠나는 북큐슈

- 5일 북큐슈(야마구치,미야지마) ₩439,000원

부산에서 카멜리아라호로 떠나는 큐슈여행

- 4일 실속 + 1인자유여행 ₩299,000원
- 4일 일본 나가사키, 큐슈 온천여행 ₩399,000원
- 4일 품격!! 일본의 전통료칸 카이세키요리를 맛볼 수 있는 온천여행 ₩419,000원

▶출발일: 7/26,29,8/6,11

배낭여행 일본 배낭여행 제대로 즐기!!

*문의바람

불포함:국내수송, 기사&가이드팀(30,000), 유류할증료

중국

광주출발 4일 연길 백두산 ₩1,259,000원

▶출발일: 8/4 불포함사항: 개인비용,기사&가이드(20%),4계절기우(25%)

무안출발 5일 상해/항주/황산(산위숙박) ₩799,000원

▶출발일: 8/6 불포함사항: 가이드&기사팀, 중국비자, 유류할증료

동남아

*운항일 7월 23일~ 8월 24일

- 2박4일 ₩799,000원~ (수요일출발)
- 3박5일 ₩849,000원~ (토요일출발)

불포함사항:기사&가이드팀,유류할증료

무안출발하는 마카오, 홍콩 전세기!! *운항일 7월 27일~ 8월 17일

- 2박4일 ₩749,000원~ (수요일출발)
- 3박5일 ₩949,000원~ (토요일출발)

인천출발

- 6일 베트남&캄보디아 ₩1,104,000원~

불포함사항:기사&가이드팀(50), 생수&공동경비(10%)

미주

- 7일 LA 자유여행 ₩2,390,000원~
- 7일 미서부 정통 미서부일주 ₩2,890,000원~
- 8일 미서부디즈니 ₩3,090,000원~

인천-샌프란시스코-요세미티-라스베가스-그랜드캐년-유니버스-로스엔젤레스-인천

인천-샌프란시스코-요세미티-라스베가스-그랜드캐년-유니버스-로스엔젤레스-인천

불포함:유류할증료,각종개인결제,현지선택관광,기사&가이드팀(1일~10%기준), 각종대여비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24시간 긴급호출서비스 / 여행사 가입혜택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보통 기입(예외상품: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회가입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경비(항공권, 기차, 버스, 택시, 숙박, 식사, 교통, 각종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성년에 따라 다름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래블